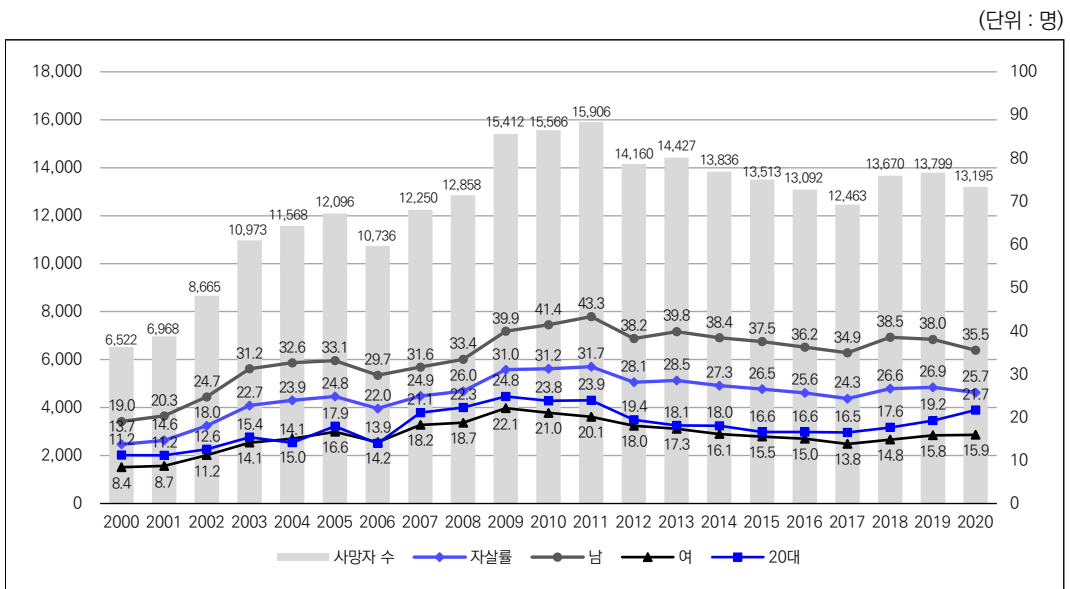


# 증가 추세에 20대 자살률

-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000년 13.7명에서 2020년 25.7명으로 증가하였음.
  - 자살률은 2011년 역대 최대였으며, 2017년까지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가 2018년 이후 인구 10만 명당 26명 수준을 이어오고 있음.<sup>1)</sup>
  - 2019년과 비교하여 전체 자살률은 줄었지만 여성 자살률과 20대 자살률은 2018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음.

[그림 1] 우리나라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 및 자살률 추이



주: 자살률은 연간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분비로 표시(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자 수/연앙 인구<sup>2)</sup> × 100,000).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 1) 자살률은 1997년 외환위기, 2002년 카드대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수직 상승한 뒤, 현재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 2) 출생률과 사망률을 산출할 때 보통 그 해의 중간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의 인구를 “연앙 인구”라 함.

- 코로나19로 대면서비스업 등 여성 비중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악화된 것<sup>3)</sup>이 여성 자살률 원인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음.
- 경찰청에서 분류한 자살자<sup>4)</sup>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로 연령별·직업별로 나눠 계산한<sup>5)</sup> 2020년 전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5명으로 2019년(30.0명)과 비교하여 1.5명(5.0%) 감소하였으나 20대 자살률은 22.7명으로 3.0명(15.2%) 증가하였음.
  - 2020년 연령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61세 이상 36.7명, 51~60세 29.9명, 41~50세 28.2명, 31~40세 26.1명, 21~30세 22.7명, 20세 미만 13.7명으로 고령일수록 자살률이 높았음.
  - 2019년과 비교하면 자살률은 61세 이상 12.4%, 51~60세 7.7%, 41~50세 7.2%, 31~40세 0.8% 감소하였으나 21~30세 15.2%, 20세 미만 10.5% 증가하였음.
  - 2020년 자살한 20대 직업은 무직자와 기타가 인구 10만 명당 55.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생이 17.5명이었음.
- 동기별로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는 인구 10만 명당 2019년 9.0명에서 2020년 9.6명으로 5.7% 증가하였고, 경제생활문제는 2019년 6.9명에서 2020년 6.3명으로 8.9%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자살동기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자살은 제도적·사회적·개인적 요인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발생하지만,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서 20대의 자살률 증가와 주요 자살동기로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 경제생활문제 비율이 높았음을 고려하면, 20대의 반복된 구직실패로 인한 효능감 저하<sup>6)7)</sup>와

3) 오삼일·이종화(2021), 「코로나19와 여성고용: 팬데믹 vs 일반적인 경기침체 비교를 중심으로」, 『BOK 이슈노트』, 한국은행.

4) 통계청의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통계법에 따라 국민(해외사망자 포함)이 신고한 사망신고서를 기초로 작성되며, 경찰청은 신고된 번사사건에 대해 경찰범죄통계 규칙에 따라 자살자 수를 작성함. 등록과정에서 경찰의 수사권 제외대상(국방부, 해경, 해외사망)이 통계청 집계에는 포함되지 때문에 통계청과 경찰청의 자살자 수에 차이가 발생함(통계청, 2010. 8. 26).

5) 경찰청에서 분류한 자살자 직업을 바탕으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의 직업과 연결하면 1) 농, 임, 수산업 취업자는 표준산업분류(10차)에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전체 취업자를 의미함. 2) 자영업은 종사상 지위상 비임금근로자(농림어업 제외)를 의미함. 3) 전문직은 표준직업분류(7차)에서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농업, 자영업 제외)를 의미함. 4) 공무원은 표준산업분류(10차)에서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전문가 제외)을 의미함. 5) 일용노동자는 종사상 지위상 일용직을 의미함. 6) 일반봉급자, 유흥업 종사자, 기타 피고용자는 나머지 업종, 나머지 지위(상용직, 임시직), 나머지 직업에서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함. 7) 학생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현재 정규교육기관에 통학 중인 조사자를 의미함(입시학원, 취업학원, 진학준비는 포함하지 않음). 8) 무직자+기타는 실업자 및 비경찰(학생 제외)을 의미함.

6) 청년패널로 본 청년층 자살사고의 결정요인 중에서 미취업자의 경우 자살충동집단의 최종 면접접수는 비자살충동 집단보다 2배 많았고 구직 시도 횟수와 구직실패 경험이 더 많았음(박은미·정태연(2017), 「청년층 자살사고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한국고용정보원).

7) 선행연구에서 청년층의 취업스트레스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자율감의 상실, 효능감의 저하가 주요 매개변인이었음(김향수·채규만(2014), 「취업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2), pp.1~26).

사회이동가능성 인식 저하<sup>8)</sup>는 그들의 자살행동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됨.

〈표 1〉 지난 4년간 연령별 자살자 수와 자살률(2017~20년)

(단위: 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자살자 수	자살률	자살자 수	자살률	자살자 수	자살률	자살자 수	자살률	
전 체	전 체	12,463	24.3	13,670	26.6	13,799	26.9	13,195	25.7	
	남	8,922	34.9	9,862	38.5	9,730	38.0	9,093	35.5	
	여	3,541	13.8	3,808	14.8	4,069	15.8	4,102	15.9	
연령대	20세 미만	합계	255	1.7	301	2.2	300	2.3	317	2.5
		남	164	2.2	154	2.1	145	2.1	164	2.5
		여	91	1.3	147	2.2	155	2.4	153	2.5
	20~29세	합계	1,106	16.5	1,192	17.6	1,306	19.2	1,471	21.7
		남	741	21.0	767	21.5	772	21.6	849	23.7
		여	365	11.5	425	13.2	534	16.6	622	19.4
	30~39세	합계	1,812	24.5	1,998	27.3	1,914	26.7	1,874	27.0
		남	1,226	32.3	1,351	36.0	1,222	33.1	1,223	34.2
		여	586	16.3	647	18.3	692	19.9	651	19.4
	40~49세	합계	2,408	27.8	2,676	31.4	2,588	30.9	2,405	29.1
		남	1,692	38.5	1,954	45.2	1,885	44.3	1,700	40.5
		여	716	16.8	722	17.3	703	17.1	705	17.4
	55~59세	합계	2,568	30.9	2,812	33.4	2,837	33.3	2,606	30.6
		남	2,002	47.7	2,179	51.4	2,165	50.6	1,964	45.8
		여	566	13.8	633	15.1	672	15.9	642	15.2
	60~64세	합계	940	29.6	1,098	32.5	1,248	34.7	1,130	29.7
		남	730	46.8	866	52.0	993	55.8	822	43.7
		여	210	13.0	232	13.6	255	14.0	308	16.0
	65세 이상	합계	3,372	47.7	3,593	48.6	3,600	46.6	3,392	41.7
		남	2,366	78.9	2,591	82.2	2,542	76.7	2,371	67.4
		여	1,006	24.7	1,002	23.7	1,058	24.0	1,021	22.1
연령미상	합계	2	0	0	0	6	0	0	0	
	남	1	0	0	0	6	0	0	0	
	여	1	0	0	0	0	0	0	0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8)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회이동가능성인식은 개인의 일생 동안 혹은 자녀세대에서 현재보다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얼마나 낙관적으로 보는지 측정된 지표임. 30대 미만의 세대 간 사회이동가능성인식은 2009년 44.0%, 2011년 40.1%, 2013년 40.3%, 2015년 31.3%, 2017년 30.3%, 2019년 30.0%였음. 세대 내 인식 또한 2009년 43.5%에서 2019년 27.7%로 감소하여 세대 간이든 세대 내이든 사회이동가능성 인식은 점차 낮아지고 비관적 인식이 높아짐.

〈표 2〉 우리나라 연령별·직업별 자살자 비교(2019년, 2020년)

(단위: 천명, 명)

			연령별							합 계
			0~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미상 <sup>9)</sup>	
2019	전 체	경찰인구	3,124	6,543	7,416	8,461	8,410	10,549	-	44,504
		자살률	12.4	19.7	26.3	30.4	32.4	41.9	-	30.0
	농림어업	경찰인구	3	35	62	126	316	853	-	1,395
		자살률	0.0	2.9	9.7	16.6	18.7	22.4	-	19.9
	자영업	경찰인구	12	242	823	1,540	1,719	1,079	-	5,415
		자살률	0.0	21.1	19.3	21.3	19.3	15.0	-	19.0
	전문직	경찰인구	28	1,100	1,534	1,196	585	147	-	4,589
		자살률	10.7	3.7	3.8	5.2	8.6	17.1	-	5.2
	공무원	경찰인구	2	121	221	221	208	215	-	988
		자살률	0.0	15.7	12.2	19.5	9.1	0.5	-	11.0
	일용노동자	경찰인구	76	176	117	280	425	286	-	1,361
		자살률	0.0	4.0	17.9	19.6	15.3	10.2	-	13.0
	일반+유흥업 +기타피고용자	경찰인구	246	2,360	2,890	3,289	2,966	1,625	-	13,376
		자살률	5.3	9.4	14.3	13.0	11.0	9.5	-	11.6
무직자+기타 +학생	경찰인구	2,757	2,510	1,768	1,809	2,192	6,345	-	17,381	
	자살률	13.5	37.8	71.8	90.4	85.6	60.8	-	57.4	
2020	전체	경찰인구	2,957	6,607	7,252	8,360	8,501	11,107	-	44,785
		자살률	13.7	22.7	26.1	28.2	29.9	36.7	-	28.5
	농림어업	경찰인구	3	37	66	132	303	905	-	1,445
		자살률	0.0	8.2	16.7	18.2	13.9	20.1	-	18.1
	자영업	경찰인구	14	255	818	1,414	1,602	1,149	-	5,253
		자살률	7.0	19.6	18.2	21.1	19.2	11.9	-	18.0
	전문직	경찰인구	15	1,083	1,436	1,256	626	160	-	4,575
		자살률	6.9	5.2	5.6	4.1	7.5	21.9	-	5.9
	공무원	경찰인구	3	125	209	235	226	226	-	1,024
		자살률	0.0	13.6	13.4	13.6	8.0	0.9	-	9.5
	일용노동자	경찰인구	55	156	135	222	415	285	-	1,267
		자살률	0.0	7.1	14.8	15.8	13.7	5.6	-	11.0
	일반+유흥업 +기타피고용자	경찰인구	229	2,282	2,787	3,216	3,001	1,826	-	13,341
		자살률	6.1	10.5	14.6	12.3	10.0	7.9	-	11.2
학생	경찰인구	2,359	930	24	5	3	2	-	3,322	
	자살률	11.0	17.5	8.5	0.0	0.0	0.0	-	12.8	
무직자+기타	경찰인구	279	1,740	1,777	1,880	2,326	6,555	-	14,558	
	자살률	46.2	55.3	67.2	80.8	76.0	54.3	-	62.8	

주: 1) 연령별·직업별 자살률은 경찰청에서 추산한 자살에 의한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경제활동인구로 나눠 100,000분비로 표시 (경찰청 추산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자 수/(경제활동인구×1,000)×100,000).

자료: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9) 미상으로 분류된 자살자 수는 2019년 17명, 2020년 5명이었음.

〈표 3〉 우리나라 동기별 및 성별 자살률 비교(2019년, 2020년)

(단위: 명, %)

	2019년			2020년			자살률 증감	
	성별	자살자 수	자살률	성별	자살자 수	자살률		
전 체	전체	13,367	26.0	전체	12,776	24.9	-4.4	
	남	9,415	36.8	남	8,792	34.3	-6.6	
	여	3,948	15.3	여	3,983	15.5	0.8	
	불상	4	-	불상	1	-	-	
동기 별	가정문제	남	755	2.9	남	630	2.5	-16.5
		여	313	1.2	여	261	1.0	-16.7
		불상	1	-	불상	0	-	-
		소계	1,069	2.1	소계	891	1.7	-16.7
	경제생활문제	남	3,055	11.9	남	2,793	10.9	-8.6
		여	509	2.0	여	456	1.8	-10.5
		불상	0	-	불상	0	-	-
		소계	3,564	6.9	소계	3,249	6.3	-8.9
	육체적 질병문제	남	1,813	7.1	남	1,540	6.0	-15.0
		여	705	2.7	여	632	2.5	-10.4
		불상	0	-	불상	0	-	-
		소계	2,518	4.9	소계	2,172	4.2	-13.8
	정신적, 정신과적 문제	남	2,608	10.2	남	2,657	10.4	1.9
		여	2,029	7.9	여	2,248	8.7	10.7
		불상	1	-	불상	0	-	-
		소계	4,638	9.0	소계	4,905	9.6	5.7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	남	489	1.9	남	397	1.6	-18.8	
	여	109	0.4	여	95	0.4	-12.9	
	불상	0	-	불상	0	-	-	
	소계	598	1.2	소계	492	1.0	-17.7	
기타	남	695	2.7	남	775	3.0	11.5	
	여	283	1.1	여	291	1.1	2.8	
	불상	2	-	불상	1	-	-	
	소계	980	1.9	소계	1,067	2.1	8.9	

주: 1) 기타의 동기에는 남녀문제, 사별문제, 학대 또는 폭력문제, 미상, 기타의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2) 경찰청 추산 고의적 자해에 의한 사망자 수/연앙 인구×100,000.

자료: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각 연도.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